시민이 편리한 '스마트 순천' 정보화 기반 구축

스마트 청사안내 · 공공Wi-fi ·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 등

순천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한 '스마트 순천' 구현을 위해 다양한 IC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정보화 환경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우선 공공 무선인터넷(Wi-Fi) 확대,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 행복나눔 '찾아가는 사랑방 SNS 교육',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 모바일 이동 결재서비스, 스마트 공유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찾고자 하는 부서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 안에 '스마트 청사안내시스템'을 지난 23일부터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시청 구조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사 배치도와 부서에서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담당자의 이름, 사진, 전화번호 등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시 정책 홍보 동영상과 포토 갤러리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순천' 완성을 위한 기반 플랫폼인 공공무선인터넷(Wi-Fi) 구축은 도시 활성화와 스마트 관광을 위한 중요 인프라 서비스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요소다.

순천시는 올해 안에 송광사 등 주요 관광지, 공원, 연향 패션의 거리 등 9개소에 확대 구축할 계획이며, 2019년까지 순천휴양림, 온누리자전거 터미널 등 공공장소 26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2020년까지는 순천시 공공장소 어디에서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민 10명중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SNS가 일상의 소통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우선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등 5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방 SNS 교육'을 2월부터 실시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관광홈페이지 명칭을 '두근두근 순천여행'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PC를 비롯한 스마트폰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관광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1일 4백여 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시청 홈페이지도 새롭게 단장하여 보다 쉽게 정보를 찾고, 시민들과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더불어 생활에 필요한 민원, 세금, 상하수도요금 등 분야별 생활 전화번호와 업무 담당자 전화번호를 모바일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전화번호 안내시스템'도 서비스 예정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하나의 대형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서버 클라우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이 문서를 사용하던 팩스(FAX)를 '전자팩스(FAX) 시스템 도입'으로 보다 스마트한 행정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나주시, 겨울방학 영어 · 중국어 캠프 성료

캠프 참가 학생 169명 수료…우수학생 39명 시상

나주시가 지난 20일, 관내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외국어 캠프 수료식을 동신대학교 나래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캠프 참가학생 및 학부모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주시는 영어, 중국어 캠프 수료생 169명 가운데 우수학생 39명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2주 동안의 캠프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상영,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동신대 캠퍼스 일원에서 열렸던 겨울방학 캠프는 원어민 강사 15명 및 보조 교사 30명 등과의 합숙을 통해 외국어어 몰입교육과 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많은 학생들이 해외 어학연수에 준하는 수준 높은 몰입교육과 폭넓은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상승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면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글로벌 경쟁 시대에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200명의 학생 입소로 시작된 외국어 캠프는 민선 6기 들어 대상자를 400명으로 대폭 확대해 지금까지 총 1,900여명의 초·중학생이 수료했으며, 이 중 성적우수학생에게는 미국, 중국 어학연수 특전이 부여됐다.

한편 민선 6기 나주시는 다수 보편적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 ▲초·중학생 미국 어학연수 ▲진로 진학 체험프로그램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고교생 안심귀가 서비스 등을 매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고교생 특화 전문교육지원 ▲중학생 중국 어학연수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지역 학생을 위한 다양한 교육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양시, 제1기 청년 서포터즈단 모집

청년정책 홍보 · 정책제안 활동 등 다양한 활동 전개

광양시가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 홍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칠 '제1기 광양시 청년 서포터즈단' 30명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월 5일까지이며, 광양시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11개월간 활동하는 '청년 서포터즈단'은 광양의 청년정책과 각종 소식 등을 취재해 광양시 청년 SNS인 페이스북 그룹 '꿈꾸는 청춘 다락방 #광양'에 제작한 콘텐츠를 게재한다.

또 SNS를 통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련 정책과 아이디어까지 제안하는 민-관 SNS 소통 메신저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청년 소통 강화를 위해 ▶활동실적에 따른 봉사활동 인정 ▶콘텐츠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간담회 및 팸투어 ▶축제 및 행사 참여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희망자는 광양시 홈페이지 공지사항(www.gwangyang.go.kr) 또는 시청 공식 블로그(http://gwangyang.blog.me)에서 지원서 및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gwangyangsi@naver.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오는 2월 12일 광양시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홍보소통담당관실 미디어팀(☎061-797-1947~1949)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관 홍보소통담당관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시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포터즈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광양시, 치매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앞장

'동행'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광양시보건소가 지난 20일 시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치매예방지도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치매예방지도자와 함께 치매 없는 건강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신청한 74개 마을을 대상으로 활동가 배정에 관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보건소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월부터 기존의 47개 마을에서 74개로 확대해 46명의 치매예방지도자가 마을을 직접 방문하는 '동행'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 도움을 주는 미술활동과 인지놀이, 신체활동, 레크레이션, 퍼즐, 게임, 회상그림 등 다양한 뇌자극 훈련으로 이뤄져 있다.

시 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기억력과 주의력, 지력, 감성, 신체기능, 상상력을 자극해 치매예방 효과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숙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전남지역 보건소 평가에서 치매사업 우수보건소와 우수프로그램상 수상과 치매안심센터 임시 개소 등 치매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없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올해도 제4기 치매예방지도자를 50명을 추가로 배출해 우리시가 지향하는 건강장수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충권 기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보험 가입 추진

2017년 106건 4천8백만원 보상금 지급

순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8년에도 시민 대상의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전거 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운행중 사망 및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7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 보상되고,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보험처리로 106건, 4천8백만원이 순천시민에게 지급되었고 올해는 진단위로금을 작년 대비 2배 증액하여 보장이 더 늘어 난다.

또, 무인대여 37개소를 운영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는 순천 시민뿐 아니라 순천을 찾는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온누리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가입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자전거도로 확충, 자전거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종영 기자